

각 장절의 전거

각 장절의 전거

붓다

제 1 장

제 1 절

| | | |
|----------------------|---|----|
| 1 불전 | 2 | 3 |
| 3 팔리, 증지부 3~38 | 4 | 15 |
| 3 팔리, 중부 3~26, 성구경 | 5 | 6 |
| 4 불전 | 5 | 15 |
| 5 팔리, 중부 9~85, 보리왕자경 | 6 | 15 |
| 5 불전 | 7 | 4 |
| 5 팔리, 경집 3~2, 정근경 | 7 | 11 |
| 5 불전 | 7 | 15 |
| 6 팔리, 율장대품 제 1 품 | 8 | 9 |
| 7 장아함경 제 2, 유행경 | 9 | 9 |

제 2 절

| | | |
|-------------------|----|----|
| 1 장아함경 제 2, 유행경 | 10 | 13 |
| 2 반니원경 | 11 | 12 |
| 4 유교경 | 13 | 13 |
| 5 장아함경 제 2, 유행경 등 | 14 | 3 |

제 2 장

제 1 절

| | | |
|--------------|----|---|
| 1 관무량수경, 유마경 | 16 | 3 |
|--------------|----|---|

각 장절의 전거

| | 頁 | 行 |
|-------------------------|----|----|
| 1 수능업경 | 16 | 6 |
| 1 유마경, 대반열반경 | 16 | 10 |
| 2 법화경 제 16, 수량품 | 17 | 4 |
| 2 심지관경 | 17 | 15 |
| 3 대반열반경 | 18 | 7 |
| 제 2 절 | | |
| 1 법화경 제 3, 비유품 | 20 | 6 |
| 2 법화경 제 4, 신해품 | 21 | 7 |
| 3 법화경 제 5, 약초유품 | 23 | 8 |
| 제 3 절 | | |
| 1 법화경 제 16, 수량품 | 24 | 12 |
| | | |
| 제 3 장 | | |
| 제 1 절 | | |
| 1 화엄경 제 5, 여래광명각품 | 28 | 3 |
| 2 대반열반경 | 29 | 1 |
| 2 화엄경 | 29 | 5 |
| 3 금광명경 제 3, 삼신품 | 29 | 12 |
| 제 2 절 | | |
| 1 화엄경 | 32 | 5 |
| 1 화엄경 제 34, 입법계품 | 32 | 10 |
| 1 아미타경 | 32 | 13 |
| 2 화엄경 | 33 | 1 |
| 2 잡아함경 35 권 5 | 33 | 6 |
| 3 대반열반경 | 33 | 9 |

각 장절의 전거

| 제 3 절 | 頁 | 行 |
|------------------------------|----|----|
| 1 팔리, 중부 8~77, 선생우타이대경 | 35 | 8 |
| 2 대반열반경 | 36 | 6 |
| 2 능가경 | 36 | 15 |
| 3 화엄경 제 32, 여래성기품 | 37 | 6 |
| 4 법화경 제 25, 보문품 | 38 | 1 |
| 4 대반열반경 | 38 | 5 |
| 5 법화경 제 2, 방편품 | 38 | 14 |
| 5 법화경 제 3, 비유품 | 39 | 1 |

가르침

제 1 장

제 1 절

| | | |
|---|----|----|
| 1 팔리, 율장대품 1~6, 팔리, 상응부 56~11~12, 전법륜경 | 42 | 3 |
| 2 팔리, 본사경 103 | 43 | 13 |
| 2 팔리, 중부 2, 일체루경 | 44 | 6 |
| 3 사십이장경 | 44 | 12 |
| 3 승만경 | 45 | 10 |

제 3 절

| | | |
|-------------|----|---|
| 1 화엄경 | 47 | 6 |
|-------------|----|---|

제 2 장

제 1 절

| | | |
|----------------------------|----|----|
| 1 팔리, 중부 4~35, 살차가소경 | 51 | 3 |
| 3 팔리, 증지부 5~49 | 53 | 10 |

각 장절의 전거

| | 頁 | 行 |
|------------------------------|----|----|
| 3 팔리, 증지부 4~185 | 54 | 5 |
| 3 팔리, 증지부 3~134 | 54 | 10 |
| 제 2 절 | | |
| 1 능가경 | 54 | 15 |
| 1 화엄경 제 2, 노사나불품 | 55 | 1 |
| 1 화엄경 제 16, 야마천공품 | 55 | 8 |
| 2 화엄경 제 22, 십지품 | 55 | 16 |
| 2 능가경 | 56 | 9 |
| 2 팔리, 증지부 4~186 | 56 | 12 |
| 3 법구경 1,2,17,18 | 56 | 15 |
| 3 수능엄경 | 57 | 11 |
| 제 3 절 | | |
| 1 화엄경 제 16, 야마천공품 | 58 | 2 |
| 1 능가경 | 58 | 7 |
| 2 팔리, 증부 3~22, 사유경 | 59 | 2 |
| 2 능가경 | 59 | 14 |
| 3 능가경 | 60 | 2 |
| 제 4 절 | | |
| 1 팔리, 율장대품 제 1~6, 전법륜경 | 62 | 12 |
| 1 능가경 | 63 | 4 |
| 2 잡아함경 권 43 | 63 | 7 |
| 2 능가경등 | 63 | 15 |
| 2 팔리, 증부 2~18, 밀환경 | 64 | 8 |
| 3 능가경 | 64 | 12 |
| 4 능가경 | 65 | 10 |
| 5 유마경, 입불이품 | 66 | 7 |

각 장절의 전거

| | 頁 | 行 |
|------------------------------|----|----|
| 6 화엄경 제 34, 입법계품 | 68 | 3 |
| 7 능가경등 | 69 | 1 |
| 제 3 장 | | |
| 제 1 절 | | |
| 1 팔리, 율장대품 1~5 | 70 | 3 |
| 1 팔리, 율장소품 5~21 | 70 | 14 |
| 2 수능엄경 | 71 | 3 |
| 제 2 절 | | |
| 1 수능엄경 | 76 | 8 |
| 3 대반열반경 | 78 | 8 |
| 4 법화경 제 7, 화성유품 및 수능엄경 | 78 | 13 |
| 4 화엄경 제 32, 여래성기품 | 79 | 7 |
| 4 대반열반경 | 79 | 11 |
| 5 범망경 | 79 | 15 |
| 6 대반열반경 | 80 | 6 |
| 제 3 절 | | |
| 1 대반열반경 | 81 | 3 |
| 제 4 장 | | |
| 제 1 절 | | |
| 1 승만경 | 86 | 3 |
| 2 팔리, 증지부 2~11 | 87 | 4 |
| 2 팔리, 본사경 93 | 87 | 9 |
| 2 팔리, 율장대품 | 87 | 14 |
| 3 팔리, 증지부 3~68 | 88 | 4 |

각 장절의 전거

| | 頁 | 行 |
|----------------------------|-----|----|
| 4 팔리, 증지부 3~34 | 88 | 14 |
| 5 방광대장엄경 | 89 | 9 |
| 5 팔리, 율장대품 1~6, 전법륜경 | 89 | 14 |
| 5 팔리, 중부 2~14, 고온소경 | 90 | 1 |
| 6 대반열반경 | 90 | 12 |
| 7 팔리, 본사경 24 | 91 | 12 |
| 제 2 절 | | |
| 1 팔리, 중부 51, 칸다라카경 | 93 | 15 |
| 2 팔리, 증지부 3~130 | 94 | 10 |
| 2 팔리, 증지부 3~113 | 95 | 4 |
| 제 3 절 | | |
| 1 팔리, 본사경 100 | 95 | 13 |
| 1 잡보장경 | 96 | 8 |
| 2 대반열반경 | 97 | 10 |
| 3 팔리, 증지부 3~62 | 99 | 5 |
| 4 팔리, 증지부 3~35 | 100 | 2 |
| 5 팔리, 장로니계주 | 101 | 6 |
| 제 4 절 | | |
| 1 무량수경 하권 | 102 | 10 |
| 제 5 장 | | |
| 제 1 절 | | |
| 1 무량수경 상권 | 110 | 3 |
| 3 무량수경 하권 | 114 | 8 |
| 4 관무량수경 | 116 | 3 |

각 장절의 전거

| 제 2 절 | 頁 | 行 |
|--------------|-----|---|
| 1 아미타경 | 120 | 2 |

정진

제 1 장

제 1 절

| | | |
|------------------------|-----|----|
| 1 팔리, 중부 2, 일체루경 | 126 | 3 |
| 2 팔리, 중부 26, 성구경 | 127 | 10 |
| 3 팔리, 상응부 35~206 | 128 | 3 |
| 4 사십이장경 | 129 | 6 |
| 7 팔리, 중부 19, 쌍고경 | 131 | 14 |
| 8 팔리, 법구경주 | 132 | 14 |

제 2 절

| | | |
|--------------------------------|-----|----|
| 1 팔리, 증지부 3~117 | 133 | 12 |
| 2 팔리, 중부 3~21, 거유경 | 134 | 4 |
| 5 팔리, 중부 3~23, 의총경 | 137 | 10 |
| 6 팔리, 본생경 4~497, 마탕가 차타카 | 139 | 1 |
| 8 사십이장경 | 142 | 14 |
| 9 사십이장경 | 143 | 4 |
| 10 사십이장경 | 144 | 1 |
| 11 팔리, 증지부 2~4 | 144 | 23 |

제 3 절

| | | |
|----------------|-----|---|
| 1 잡보장경 | 145 | 7 |
| 11 대반열반경 | 156 | 4 |
| 12 잡보장경 | 157 | 2 |

제 2 장

| 제 1 절 | 頁 | 行 |
|------------------------------|-----|----|
| 1 팔리, 중부 7~63, 전유경 | 161 | 3 |
| 2 팔리, 중부 3~29, 대수심유경 | 163 | 8 |
| 3 불승도리천위모설법경 | 165 | 3 |
| 4 팔리, 장로계주 | 165 | 10 |
| 5 팔리, 중부 3~28, 대상적유경 | 167 | 10 |
| 5 대반열반경 | 168 | 6 |
| 6 백연경 | 168 | 16 |
| 7 대반열반경 | 170 | 9 |
| 8 대품반야바라밀경 88, 상제품 | 172 | 8 |
| 9 화엄경 34, 입법계품 | 173 | 14 |
| 제 2 절 | | |
| 1 팔리, 증지부 3~88 | 175 | 17 |
| 1 팔리, 증지부 3~81 | 176 | 10 |
| 1 팔리, 증지부 3~82 | 177 | 2 |
| 2 반니원경 상권 | 177 | 14 |
| 3 팔리, 중부 14~131, 분별성제경 | 178 | 12 |
| 4 반니원경 상권 | 180 | 4 |
| 6 팔리, 증지부 5~16 | 181 | 1 |
| 7 화엄경 6, 명난품 | 181 | 8 |
| 7 대반열반경 | 182 | 4 |
| 7 잡보장경 | 182 | 15 |
| 8 금광명경 26, 사신품 | 183 | 10 |
| 9 대반열반경 | 184 | 7 |
| 10 팔리, 장로계주 | 185 | 9 |
| 11 팔리, 본생경 55 | 186 | 7 |

각 장절의 전거

| | 頁 | 行 |
|---------------------|-----|----|
| 12 팔리, 본사경 39,40 | 187 | 13 |
| 12 대반열반경 | 188 | 3 |
| 12 대반열반경 | 188 | 5 |
| 12 팔리, 증지부 5~12 | 188 | 9 |
| 13 반니원경 | 188 | 14 |
| 13 수능엄경 | 189 | 6 |
| 제 3 절 | | |
| 1 팔리, 상응부 55~21,22 | 190 | 10 |
| 2 팔리, 증지부 5~32 | 191 | 7 |
| 2 유마경 | 191 | 13 |
| 2 수능엄경 | 192 | 2 |
| 3 무량수경 하권 | 192 | 9 |
| 4 팔리, 상응부 1~4~6 | 193 | 4 |
| 4 화엄경 33, 이세간품 | 193 | 6 |
| 5 화엄경 24, 십인품 | 194 | 4 |
| 5 금광명경 4, 금고품 | 194 | 12 |
| 5 관무량수경 | 195 | 5 |
| 5 무량수경 | 195 | 7 |
| 6 대반열반경 | 195 | 12 |
| 7 팔리, 중부 2~16, 심화야경 | 196 | 13 |
| 7 무량수경 권하 | 197 | 10 |
| 제 4 절 | | |
| 1 법구경 | 198 | 6 |
| 7 팔리, 상응부 1~4~6 | 207 | 7 |
| 7 증일야함경 | 208 | 5 |
| 7 대반열반경 | 208 | 8 |

승가

제 1 장

| 제 1 절 | 頁 | 行 |
|----------------------------------|-----|----|
| 1 팔리, 본사경 100, 중부 1~3, 법사경 | 210 | 3 |
| 1 팔리, 본사경 92 | 210 | 6 |
| 2 팔리, 율장대품 1~30 | 210 | 13 |
| 3 팔리, 중부 4~39, 마읍대경 | 211 | 14 |
| 4 팔리, 중부 4~40, 마읍소경 | 213 | 3 |
| 5 법화경 제 19, 법사품 | 214 | 5 |
| 5 법화경 제 19, 법사품 | 214 | 9 |
| 6 법화경 제 14, 안락행품 | 214 | 16 |

제 2 절

| | | |
|-----------------------------|-----|----|
| 1 팔리, 상응부 55~37 | 216 | 7 |
| 1 팔리, 증지부 3~75 | 216 | 15 |
| 1 팔리, 상응부 55~37 | 217 | 5 |
| 1 팔리, 상응부 55~54 | 217 | 8 |
| 2 화엄경 제 22, 십지품 | 217 | 13 |
| 3 대반열반경 | 219 | 4 |
| 5 화엄경 제 7, 정행품 | 222 | 4 |
| 6 불승도리천위모설법경 | 225 | 8 |
| 7 화엄경 제 21, 금강당보살십회향품 | 226 | 8 |
| 8 대반열반경 | 227 | 8 |

제 3 절

| | | |
|----------------------|-----|----|
| 1 육방예경 | 228 | 11 |
| 3 팔리, 증지부 2~4 | 234 | 14 |
| 4 팔리, 증지부 3~31 | 235 | 13 |

각 장절의 전거

| | 頁 | 行 |
|----------------------------|-----|---|
| 5 팔리, 본생경 417, 가전연본생 | 236 | 2 |
| 6 육방예경 | 238 | 6 |
| 6 법구비유경 4 | 239 | 2 |
| 8 버마불전 | 240 | 3 |
| 9 승만경 | 241 | 1 |

제 2 장

제 1 절

| | | |
|--------------------------|-----|----|
| 1 대반열반경 | 244 | 3 |
| 2 팔리, 증지부 3~118 | 246 | 2 |
| 3 팔리, 상응부 | 248 | 2 |
| 4 팔리, 율장대품, 10~1~2 | 248 | 13 |
| 4 장아함경 제 2, 유행경 | 249 | 4 |
| 5 팔리, 율장대품, 10~1~2 | 250 | 15 |

제 2 절

| | | |
|-----------------|-----|----|
| 1 팔리, 상응부 | 254 | 3 |
| 1 증음경 | 255 | 1 |
| 2 유마경 | 255 | 6 |
| 3 대반열반경 | 256 | 12 |
| 3 아미타경 | 257 | 8 |
| 4 무량수경 | 258 | 1 |
| 4 유마경 | 258 | 12 |

제 3 절

| | | |
|------------------------------|-----|----|
| 1 팔리, 법구경주 1 | 259 | 4 |
| 1 증일아함경 34~2 | 259 | 10 |
| 2 증일아함경 34~2, 팔리, 법구경주 | 260 | 10 |

각 장절의 전거

| | 頁 | 行 |
|-------------------|-----|----|
| 3 증일아함경 5~1 | 261 | 9 |
| 3 유부율과승사 10..... | 261 | 13 |
| 4 앙굴마경 | 262 | 12 |
| 5 증일아함경 26..... | 263 | 16 |

불교통사

-인도로부터 일본에 이르기까지-

1. 인도

중인도에서 아시아의 빛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을 때, 혹은 바뀌 말해서 대지혜와 대자비의 샘물이 그곳에서 분출되었을 때, 그것은 인류의 정신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수세기에 걸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왔다.

고타마 싯달타가 고향을 떠나 출가하여 탁발수도승으로서 남쪽 마가다국으로 가서 보리수 밑에서 정각을 이룬것은 기원전 5 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 정각을 얻은 그를 후세 학자들은 석가모니라부르며 추앙하게 된다. 그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45 년 동안 그는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걸머지고 설 새 없이 설법전도의 삶을 이어갔다. 그 결과 5 세기 말엽까지 위대한 불교도들이 중부인도 여러 나라와 부족들 사이에 계속하여 꾸준히 출현했다.

마우리아 왕조 제 3 대 왕인 아쇼카왕 재위(서기전 268-232년)에 이르러서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은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나아가 붓다의 가르침은 인도를 넘어서 멀리 국외에까지 전파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불교통사

마우리아 왕조는 인도 최초의 통일 왕조였다. 제 1 대 찬드라굽타왕 재위(서기전 317-293 년) 때, 그 지배영역은 이미 북쪽으로는 히말라야 산맥, 동쪽으로는 벵갈만 서쪽으로는 힌두쿠시 산맥 그리고 남쪽으로는 빈디아 산맥 남쪽까지 펼쳐졌으며, 아쇼카왕은 다시 남쪽 칼링가와 그 밖의 지역을 정복하여 그 영역을 데칸고원까지 확장하였다.

아쇼카왕은 찬다쇼카(무서운 아육왕)라고 불릴 정도로 성격이 난폭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칼링가를 정복하면서 자행된 살육의 참상을 본 이후부터는 마음을 크게 돌려 역대의 왕 그 누구보다도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르는 신봉자가 되었다. 그 후 이 왕은 불자가 되어 수많은 불사를 이루었는데, 이 중 다음 두 가지가 가장 눈길을 끈다.

첫째는 아쇼카왕의 석주인데, 이것은 불교정신에 입각한 자신의 정치철학을 석주나 매끄러운 절벽에 새겨서 영내의 각지에 세운 것이다. 둘째는 인도 전역에 붓다의 교법을 펼침과 동시에 인도를 넘어 전 세계에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절을 보낸 것이다. 특히 사절들 중에는 멀리 시리아, 이집트, 마케도니아, 에페이로스까지 파견된 자도 있었으며, 바로 그 때 불교가 서방세계에 전해졌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또한 당시 탐라파르니 즉 스리랑카로 파견된 사절 마هند라는 아름다운 랑카드비파에 아름다운 가르침을 수립하는 데 성공하여 남방불교의 기점을 이 섬에 세웠다.

2. 대승불교의 흥기

후대의 불교신자들은 불교동점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기원전의 불교는 분명하게 서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략 서력기원 초기가 되자 불교의 얼굴은 동쪽으로 향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에 관해 언급하기에 앞서 우리는 불교내부에서 일어난 커다란 변화를 먼저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대승이라 불리는 새로운 파도가 뚜렷한 존재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그 새로운 파도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하여 생겨났는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다. 첫째, 이 경향은 다만 진보주의 성향의 비구들, 다시말하면 대승 또는 대중부의 사상적 계보 속에 생겨났다는 추측과, 둘째는 기원전 1, 2 세기에서 기원 후 1 세기 경에 걸쳐서 대승경전의 중요한 내용 몇 가지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승경전들을 배경으로 하여 나가르쥬나(용수)의 훌륭한 사상적 활약이 전개되면서 대승불교는 선명하게 불교사의 무대 전면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장구한 불교의 역사 속에 대승불교가 완수한 역할은 매우 크다. 중국을 비롯하여 한국과 일본의 경우, 거의 대승불교의 영향 아래 불교의 역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승불교는 대중의 구제라는 새로운 이상을 제시하고 있고, 그 이상을 실현하는 사람으로서 보살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간상을 고안해 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보살들을 지탱하는 원리로서 대중의 사상가들이 제시한 형이상학 또는 심리학적 영역에서의 지적 성과는 참으

불교통사

로 훌륭한 것 이었다. 이렇게 대승불교는 뚜렷하게 고타마 붓다의 교법의 계보를 따라가는 한편 지혜와 자비로 가득찬 가르침의 물길 속에 새로운 자양분을 풍부하게 쏟아 부었다. 이로써 불교는 차츰 에너지가 풍부해지고 더욱 열정에 넘쳐서 큰 강이 도도하게 돌진하는 물결처럼 동방의 나라들을 적시게 되었다.

3. 서역

서역은 중국이 불교를 처음으로 만나는 관문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을 빼놓고 인도에서 중국에 이르는 불교의 흐름을 설명할 수 없다. 서역의 실크로드가 중앙아시아의 황량한 지역을 뚫고 동서양을 잇는 무역로로 열린 것은 기원전 2세기 말경 한무제(기원전 140-87년)시대였다. 그 즈음 한의 영토는 멀리 서방까지 미쳐 있었고, 그와 국경을 접하고 있던 서방의 나라들 즉 대완, 강거, 대월씨, 안식과 같은 나라에는 일찍이 알렉산더 대왕이 불어넣은 상업정신이 여전히 활발하게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을 잇는 고대 무역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상품은 중국의 비단이었으므로 이 길은 실크로드라 불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기원전후경부터 불교를 중심으로 시작된 인도와 중국간의 문화접촉도 이 무역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실크로드는 무역의 길이면서 또한 불교의 길이었던 것이다.

4. 중국

중국의 불교 역사는 경전의 도입과 그 번역사업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후한 명제의 영평년간(서기 58-76 년)에 가섭마등 등이 번역한 사십이장경이 그 최초의 경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그 진위가 의심스럽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 대신 148 년경에서 171 년경에 걸쳐 낙양에서 번역업에 종사하였던 안세고의 불사는 확실한 자료적 뒷바침을 가지고 있다. 그로부터 북송(960-1129 년) 시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불경번역사업은 거의 천년에 걸쳐 계속되었다.

초기에 경전을 가져와 번역의 중심역할을 한 사람은 대부분 서역에서 온 승려들이었다. 예를 들면 안세고는 안식국 즉 파르티아에서 온 사람이며, 3 세기경 낙양에 와서 무량수경을 번역한 강승개는 강거 즉 사마르칸은 월씨 출신으로 3 세기 후반부터 4 세기 초기까지 낙양 또는 장안에 있었다. 그리고 5 세기 초기에 구자에서 온 구마라즙에 이르러 중국의 역경은 그 정점에 이르게 된다.

그 무렵 인도로 건너가 범어를 배우고 법을 구하는 입축 구법승들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 선구자로 법현(339-420 년)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용안 3 년(399)에 장안을 출발하여 15 년 뒤에 귀국하였다. 이런 입축 구법승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단연 현장(602-664)이다. 현장은 정관원년(627)에 출발하여 정관 19 년(645)에 귀국하였다. 실로 19 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또 의정(635-713)은 함형 2 년(671)에 해로를 따라 인도로 건너가서 25 년 후에 해로를 통하여 귀국하였다.

그들은 제 힘으로 인도로 가서 범어를 배우고 역시 혼자 힘으로 경전을 선택하여 가져왔으며, 귀국 후에는 거의 역경의 중심적 역할을

불교통사

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현장의 어학능력은 매우 뛰어나 그의 정력적인 번역불사에 의하여 중국의 경전번역사는 또 하나의 새로운 정점을 맞이 하였다. 학자들이 구마라집으로 대표되는 예전의 번역을 구역이라 부르고, 현장 이후의 새로운 번역을 신역이라 부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렇게 역출된 방대한 양의 불교경전을 바탕으로 중국의 불교는 차츰 사상적, 종교적으로 강하게 중국화되어 간다. 중국 민족의 자질이나 요구, 그리고 강한 자신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초기시절부터 반야부경전에서 말하는 공의 형이상학에 그들이 깊은 관심을 기울인 것이 하나의 실례가 될 수 있다. 후에 그들이 이른바 소승을 버리고 오로지 대승에 마음을 기울이게 된 것도 또 하나의 예가 된다. 이와 같은 중국화 경향은 천태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선종의 출현에 이르러서는 극치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천태종은 6세기 후반 천태대사 지의(538-597, 천태종 제3조)에 의해서 대성되었다. 그는 중국이 낳은 불교사상가 중의 대표적인 명석한 두뇌였고, 그가 뛰어난 감식안으로 석가가 50여년간 행한 설법을 오시팔교로 분류해서 엮은 교판은 그 후 오래도록 동북아시아의 불교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중국에서는 경전들이 그 성립 순서와 관계없이 들어왔고, 들어오는 대로 번역되었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방대한 양의 번역 경전들이 쌓여갔다. 바야흐로 그 경전들의 성립과 가치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불교전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설명해야 했고, 나아가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입장을 밝힐 필요가 생겼다. 경전을 평가

하는 데는 우선 중국 사상의 경향이 크게 작용했다. 그 중에서도 지의의 사상이 가장 정연하고 훌륭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근대의 불교연구가 출현하면서 그것의 지배적인 영향은 마침내 종말을 고하였다.

중국불교사에서 대미를 장식한 것은 선종이다. 그 초조는 남인도의 사문인 보리달마(-528)이지만, 그가 뿌린 씨앗은 제 6 조 혜능(638-713) 이후 중국불교의 정수로서 만개하였고, 8 세기 이후 쉬지 않고 인재를 배출하는 등 수세기에 걸쳐 선은 크게 번성하였다.

중국불교에는 중국인의 존성에 깊이 뿌리내린 새로운 사고 방식이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불교가 중국사상으로 윤색된 것임을 뜻한다. 인도에서 발원한 붓다 고타마의 가르침의 흐름은 이처럼 신선한 물결을 보태어 더욱 큰 강이 되어 동양인의 정신을 풍요롭게 한다.

5. 일본

일본불교의 역사는 6 세기에 시작한다. 538 년 흠명왕의 조정에 백제의 성왕이 사신을 통해 불상과 경전을 보내온 것이 일본에 불교가 전래된 시초이다. 그로부터 일본은 1400 년이 넘는 불교역사를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 긴 역사 속에서 일본불교는 세가지에 초점을 두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7, 8 세기의 불교이다. 이 시기는 법륜사의 건립(607)에서부터 동대사의 건립(752)에 이르는 시대이다. 당시 아시아는 전체

불교통사

가 예사롭지 않은 고도의 문화적 흐름을 타고 있었다. 서방문명이 깊은 암흑 속에 묻혀있던 바로 이때 동방의 문명은 괄목할 만큼 활발하고 웅대한 움직임의 열풍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과 서역 그리고 인도와 남태평양의 국가들에서도 지적이고 종교적이며 예술적인 활동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불교는 그와 같은 움직임과 서로 맞닿아서 광대한 휴머니즘의 물결을 이루어 동방세계를 휩쓸고 있었다. 그리고 법륜사와 동대사의 건립과, 이것을 둘러싼 다채로운 종교적, 예술적 활동 등과 같은 이 무렵에 일어난 새로운 일본문화의 움직임은 모두 저 광막한 아시아 전역에 걸친 문화의 물결을 동쪽 끝에서 흡수하는 포용력을 보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미개한 사회에서 살아온 일본인은 바야흐로 거대한 문화의 물결에 몸을 담겼다. 문명의 꽃은 아주 갑자기 피었다. 이것은 당시에 일본인이 맞은 큰 행운이었고, 이 행운을 베푼 것은 다름아닌 불교였다. 따라서 그 시대의 사원은 국제적인 문화의 중심지였고, 승려는 새로운 지식의 지도자였으며, 경전은 훌륭한 사상의 수레였다. 이 속에는 하나의 종교라기보다 훨씬 광범위한 문화 그 자체가 들어있었다. 일본에 처음 전래되던 시절의 불교의 모습은 이와 같았다.

9 세기에 들어오면서 최징(最澄 767-822), 공해(空海 774-835)라고 하는 위대한 두 불교인이 등장한다. 이들은 이른바 일본불교의 시초라 할 수 있는 헤이안불교라고 불리는 두개의 계파를 창설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칭 귀족들의 소일거리로 흐를 뻔한 불교를 수행을 중요시하는 본래의 입장으로 이끌었고, 도시 중심이었던 종래의 불교를 산 속으로 끌어들어서 그곳에 수행의 근본도량을 확립하였다. 그 후 가마쿠라 시대까지 300 년동안 이 두 사람의 계파인 천태종과 진언종이 주로

조정이나 귀족을 중심으로 하여 변영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12, 13 세기의 불교를 들 수 있다. 이 시절에는 법연(法然 1133-1212), 친란(親鸞 1173-1262), 도원(道元 1200-1253), 일련(日蓮 1222-1282) 등 일본이 낳은 훌륭한 승려들이 있었다. 오늘날에 일본불교를 말할 때 이들을 빼고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쩌서 이 시기에만 이와 같이 훌륭한 승려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커다란 공통의 과제 하나가 그들 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공통의 과제란 바로 불교의 일본적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는 “불교는 훨씬 이전에 이미 있지 않았던가”라며 물을지도 모른다. 역사적 사실은 그렇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충분히 소화하고 변용하여 완전히 자기 것으로 수용하기까지는 수 백년의 노력이 필요하였다. 결국 7-8 세기에 시작된 불교수용의 노력이 이제야 겨우 봄을 맞이하여 백화가 만발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12-13 세기에 등장한 승려들의 공적이었다.

그 후 일본불교는 그 탁월한 승려들이 닦은 기반 위에서 옛 영광을 유지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즉 그 때 일군의 훌륭한 불교인을 배출한 이후 일본불교의 역사에서는 더 이상 눈부신 태양이 비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 일본불교의 역사에도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현대의 불교학이 이론 원시불교에 대한 연구 성과이다.

일본의 불교는 처음 전해질 때부터 오늘날까지 중국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거의 다 대승불교였다. 특히 12-13 세기의 훌륭한 불교인들이

불교통사

배출된 이후는 종조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승의 가르침이 그 주류를 이룬 채 오늘에 이른다. 그와 같은 일본 불교의 역사 속에서 원시불교의 연구가 일어나게 된 것은 대략 메이지(明治) 중엽에 속한다. 그로써 종조 이외에 교조(敎祖)가 있음을 잊고 있던 사람들 앞에 고타마 붓다의 모습이 선명하게 재현되고, 따라서 대승의 가르침밖에 몰랐던 사람들 앞에 정연한 불타의 교법이 본래 모습을 환히 드러내게 되었다. 비록 이것이 학문의 영역에 머물러 새로운 종교적 열정을 불러 일으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일본이 갖는 불교지식은 크게 변화해가고 있다. 이것이 세번째 초점이라 할 수 있다.

한국불교

우리나라에 불교가 최초로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이다. 372년에 진나라 왕 부견이 고구려에 승려 순도를 파견하여, 불상과 경전을 전해주었다. 그 이후 약 2년 뒤에는 승려 아도가 건너왔다. 고구려왕은 이 두 승려들을 위해서 '성문사'와 '이불란사'라는 절을 세웠다. 이 절들이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불교사원이다. 6세기 말 무렵 헤자는 일본에 건너가 성덕태자의 스승이 되었고, 담징은 나라에 있는 법륜사의 벽화를 그리는 등, 고구려의 승려들은 일본에 불교를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백제에는 384년에 인도출신의 승려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하기 위해 동진에서 건너왔다. 그 다음해에 비로소 한산에 불교사원이 건립되었다. 동명성왕의 재위시기(523-554)에는 백제의 승려 겸익이 인도로 부터 인도의 승려와 함께 율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불전을 가져와 백제불교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또한 동명성왕은 처음으로 일본의 천황에게 불상과 경전을 전해주었다.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보다도 불교를 늦게 받아들였다. 신라는 눌지왕의 재위시기(417-457)에 고구려의 승려 목호자를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였다. 마침내 신라에서 불교가 민중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신라에서 불교가 국가종교로서 공인된 것은 이차돈이 527년에 순교한 이후의 일이다. 또한 진흥왕(재위 540-576)은 미륵신앙에 입각하여 귀족출신들로 구성된 청소년들의 수련단체인 화랑도를 창설하는 등 불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신라는 삼국시대에는 가장 약했고, 고립된 나라였으나, 호국불교의 영향으로 676년에 삼국을 통일하게 된다. 이 통일신라시대에는 자장

한국불교

(7세기), 원측(613-696), 원효(617-686), 의상(625-702) 등과 같은 지혜와 덕을 겸비한 다수의 학승들이 배출되었다. 원측과 의상은 당에 건너가 유학하게 되는데, 원측은 현장에게 사사하여 유식법상학을 배우고, 당에 머물러 서명사 계통이라는 법상종의 하나의 학파를 형성했다. 의상은 화엄교학의 대성자인 법장과 함께 지엄에 사사하여, 유학을 마친 뒤 신라에 돌아와 화엄교학을 확립하였다. 이들의 활약은 신라불교가 중국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전개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원효는 교학상의 여러 다른 입장들을 조화시키는 ‘화쟁사상’을 설하였고, 이것이 후대의 한국불교의 전통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대중들 사이에 이런 가르침이 널리 전해진 데에는 혜숙, 혜공, 태현, 원효와 같은 승려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특히 원효가 퍼뜨린 염불을 중심으로 한 정토교의 실천사상은 일반 대중들 사이에 널리 퍼졌다. 한편 신라의 후대에는 선불교가 유력한 가르침으로서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고려시대(935-1392)에도 불교는 국가종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다. 태조왕(재위 918-943)은 고려의 건국이 부처의 가호에 의한 것으로 믿고, 불교의 강력한 지지자가 되어 많은 사탑을 건립하였다. 이 시대에는 선불교가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 최절정기를 이루었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의 성격을 이루고 있다. 1190년에 지눌(1158-1210)은 “선은 부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의 말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넓게 한국이나 중국에서 반복되었던 주장이다. 또한 이 시대에 『고려대장경』이 조판되었고, 이것은 세계 최고의 대장경 가운데 하나이다.

1392년에 고려왕조가 붕괴되면서, 새로운 왕조를 세운 조선(1392-1910)은 유교를 숭앙하였고, 불교는 점차로 쇠퇴하게 된다. 제3대 태종왕(재위 1410-1418)은 사원을 철폐하고, 사찰에 속한 토지

등을 국유화하였으며, 도첩제를 엄격하게 실시하는 등 배불정책을 폈다. 이러한 박해는 조선왕조의 500년간 계속되었고, 결과적으로 마을이나 도읍에서 불교는 사라지고, 불교의 사원은 산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영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1910년에는 일본의 침탈이 시작되고, 불교교단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 일본이 선포한 사찰령에 의해 사원제도는 재조직되고, 주지의 임명도 허가를 필요로 하는 등 대혼란이 야기된다. 특히 승려에게 결혼이 강제적으로 장려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불교는 세속화되는 등 출가중심의 전통이 흔들리게 된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일제의 잔재인 승려의 대처문제가 하나의 쟁점으로 되어, 한국불교는 크게 출가중심의 조계종과 대처승들을 중심으로 한 태고종으로 분립하게 된다. 그 이후 출가중심의 조계종이 한국불교에서 최대의 종파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현재는 태고종이나 재가 중심의 진각종 등 다양한 종파가 새롭게 형성되어 있다.

불교성전 유전사(流傳史)

불교는 석가모니가 45 년동안 베푼 설법을 바탕으로 세워진 종교이다. 그러므로 석가모니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비록 팔만사천가지 법문과 수많은 종지종파가 있다해도 어느 것이든 석가모니의 설법을 떠나서 이루어진 것은 없다. 그리고 이런 설법을 기록한 것이 대장경이라 불리는 경전이다.

석가모니는 강력하게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였다. 누구든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말로 아주 쉽게 가르침을 설한 것이다. 그리고 80 세로 열반에 들 때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가르침을 설하였다.

석가모니가 돌아가신 뒤 제자들은 각자가 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였다. 그러나 구전되어 오는 도중에 잘못 들은 것도 있을 것이고,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항상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으면 안되며, 누구나 평등하게 그 가르침을 접할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본래 모습 그대로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장로들이 모여서 가르침을 정리하게 되었다. 이것을 결집이라고 한다. 결집에는 수많은 장로 비구들이 모여 각자가 듣고 전해온 말씀이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혹시 한 곳이라도 잘못 전해질까 우려하여 몇 달을 두고 토의하였다. 그 만큼 경건하고 신중하게 석가모니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썼음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된 가르침은 마침내 문자로 기록되었고, 세월이 지나면

서 문자로 쓰인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고승들이 주석을 붙이거나 해석을 내리게 되었다. 이것을 논장이라 한다.

붓다의 가르침 즉 경장과 훗날 고승들이 쓴 주석이나 해설서인 논장, 그리고 교단의 규범 즉 율장, 이 세가지를 삼장이라 한다. 이 장이란 무언가를 담는 그릇을 말하는 데, 붓다의 가르침을 담아두었다는 뜻이다. 이 삼장은 거의 모든 부파가 제 각각의 전통에 따르는 것을 담지하고 있지만, 현재 완전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 것은 남방상좌부의 빠리어에 의한 것 뿐이다. 이 빠리어 삼장은 남방에 전해진 불교 여러 나라의 공통된 성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중국에 처음으로 불교가 전해진 때는 후한 명제의 영평 10년(67)이라고 한다. 하지만 경전이 입수되어 번역된 것은 그 보다도 84년 뒤인 후한 환제의 원가원년(151)이었다. 그 당시에 이미 인도에서는 대승불교가 성립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는 초기의 불전과 대승의 불전이 구별없이 전해져서, 그로부터 약 1700년 이상에 걸쳐서 불교경전들은 중국어로 번역하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렇게 번역된 경전은 1440책 5586권에 달한다. 이러한 번역경전들을 한 곳에 모아 보존하려는 노력이 일찍이 위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북송무렵이 되어야 경전을 인쇄하게 되었다. 이 때부터 중국 고승의 저술도 삼장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더 이상 삼장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게 되어, 수나라로 들어오면서 일체경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당나라 때에는 대장경이라 불리게 되었다.

불교성전 유전사(流傳史)

한편 티벳에서도 7세기경 불교가 전래된 이래 9세기부터 11세기에 걸쳐서 약 150년 동안 꾸준히 경전을 번역하여 마침내 불전의 거의 대부분이 번역되었다.

이 밖에 한국, 일본, 스리랑카, 캄보디아, 터키를 비롯한 기타 동양의 모든 언어는 물론이요, 라틴어와 불어,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각국의 말로 번역되었다. 실로 석가모니의 은혜가 온 세계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되었다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번역본의 질과 불교 발달의 역사와 원전을 꼼꼼히 생각해 보면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양적으로는 1만권이 넘는 번역본이 나왔지만, 비록 대장경을 참고하더라도 이 전부가 석가모니의 참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대장경에서 중요한 것을 발췌하여 자기 믿음의 규범으로 삼고 의지처로 삼을 필요가 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의지처이다. 그러므로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우리의 현실생활과 관련해서 가장 밀접한 연결고리를 가진 것이요, 아주 친밀한 것이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면 성전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도 감동시키지 못한 채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적어도 언제나 몸에 지녀야 할 성전은 양적으로는 간결해야 하고, 질적으로는 치우치지 말고 전체를 대표하고 정확해야 하며, 용어에 있어서는 우리의 일상용어를 채택하여 친근감을 주어야 한다.

이 불교성전은 이와 같은 경건하면서도 신중한 배려에서 만들어졌다. 이 성전은 석가모니가 설한 가르침의 바다 속에서 이천 수백년 동안

불교성전 유전사(流傳史)

전해져 온 대장경을 계승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이 불교성전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석가모니의 말씀은 무한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고, 그 덕행은 가없으니 아무나 쉽게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믿음을 함께 하며 같은 길을 걸어가는 불자의 따끔한 꾸짖음을 청하며, 판을 거듭할 수록 더욱 좋고 진실하고 존귀한 것으로 완성해나가고 싶을 따름이다.

합장

불교성전의 역사

이 불교성전은 1925년 7월에 木津無庵씨를 대표로 하는 신역불교성전보급회에서 출판된 신역불교성전을 바탕으로 하여 개정 편집한 것이다. 이 초판본이 편찬되기까지는 山邊習學박사와 赤沼智善박사를 중심으로 널리 불교학계 여러 선지식들의 감수와 편집의 노고가 모여져 약 5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이에 불교전도협회는 木津無庵씨를 비롯하여 원 신역불교성전을 편집하신 선생님들께 심심한 감사와 보은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소화시대에 들어와서 동 보급회에서는 국민판 불교성전을 출판하여 전국에 보급하였다.

1934년 7월에 범태평양불교청년대회가 일본에서 개최되었을 때에 그 기념사업의 하나로써 앞서 언급한 국민판불교성전의 영어판 불교성전인 *The Teaching of Buddha*가 D. 고다드씨의 도움을 받아 전일본불교청년연맹에서 간행되었다. 1962년 불교동점 70주년을 기념하여 주식회사 미즈토요 창업자이신 沼田惠範씨가 동 역역불교성전을 간행하였다.

1965년 동씨가 재산을 회사하여 동경에 재단법인 불교전도협회를 설립하자 이 협회의 사업으로서 이 성전을 전세계에 보급하는 일이 기획되었다.

이 기획에 따라서 1966년에 새롭게 불교성전을 편집하기 위한 결집이 거행되었다. 紀野一義, 金岡秀友, 石上善應, 佐伯眞光, 松壽弘道, 坂

불교성전의 역사

東性純, 高瀬武三 일곱 분이 주요 구성원이었고, 増谷文雄, N.A. 워델, 清水俊輔 등 세 분의 협력을 얻어 현대에 부합되는 일영대역불교성전이 간행되었다.

1972년 이 성전을 바탕으로 하여 金岡秀友, 石上善應, 花山勝友, 田村完誓, 高瀬武三의 스탭진들이 편집작업을 진행시켜 영문불교성전을 간행하였다.

이어서 鹽入亮達, 高瀬武三, 立川博, 田村完誓, 坂東性純, 花山勝友(편집책임자)의 스탭들이 결집하여 1973년에 일문불교성전을 간행하였다.

나아가 이듬해인 1974년, 영문불교성전 재편집을 위하여 R. 스타이너씨의 협력하에 松濤弘道, 坂東性純, 佐伯眞光, 徳永道雄, 田村完誓, 花山勝友(편집책임자)씨들의 결집이 이루어져, 앞서 간행된 일문불교성전과 합해서 일영대조불교성전이 간행되었다.

본 한국어 불교성전은 대한전통불교연구원 원장 김지건 박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이 한국어 번역과 편집을 담당하여 간행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용곡대학 김재권(박사과정수료)이 불교성전의 새로운 개정방침에 따라 시대에 뒤떨어진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틀린 부분을 수정하였다. 또한 한문체의 알기 어려운 문장은 한영대역불교성전(조일제역)과 김지건 박사의 번역을 대조하여 원문의 의미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옮기도록 노력하였다.

1978년에는 鎌田茂雄, 奈良康明 두 분을 편집부 위원으로 맞이했

불교성전의 역사

다. 한편 2001년에는 石上善応、奈良康明、松濤広道、坂東性純、ケネス田中、渡辺章悟、米澤嘉康、前田専学(편집위원대행)을 구성원으로 하여 새롭게 불교성전편집위원회가 조직되었고, 현대에 적합한 성전으로 하기 위해서 결집이 매년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생활색인

| 인생 | 頁 | 行 |
|------------------------------------|-----|----|
| 인생의 의의..... | 5 | 12 |
| 현실의 세계..... | 103 | 15 |
| 이상적인 삶..... | 254 | 3 |
| 잘못된 인생관..... | 49 | 6 |
| 바른 인생관..... | 45 | 10 |
| 치우친 인생관..... | 62 | 12 |
| 미혹된 사람에게(비유 이야기)..... | 137 | 8 |
| 사람의 생활(비유 이야기)..... | 96 | 8 |
| 애욕에 빠져 지내면(비유 이야기)..... | 95 | 13 |
| 노인과 병자의 죽은 자가 가르쳐 주는 것 (이야기)..... | 100 | 2 |
|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야기)..... | 101 | 6 |
|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다섯 가지..... | 53 | 10 |
| 세상의 네 가지 진리..... | 54 | 5 |
| 미혹과 깨달음은 마음에서 나타난다..... | 54 | 15 |
| 범부가 이룰 수 없는 일이나 이루면 존귀한 스무 가지..... | 144 | 1 |

믿음

| | | |
|-------------------------|-----|----|
| 믿음은 부처님이다..... | 193 | 4 |
| 믿음은 세 가지 마음을 함께 한다..... | 194 | 12 |
| 믿음은 불가사의한 것..... | 196 | 4 |

생활색인

| | 頁 | 行 |
|--|-----|----|
| 믿음은 진실의 표현 | 195 | 5 |
| 진실을 알아보기 어려운 것은(비유 이야기) | 80 | 6 |
| 불성은 올바른 스승에 의하여 그 있는 곳이 알려진다 (비유 이야기) | 82 | 13 |
| 불성은 번뇌에 싸여 있다(비유 이야기) | 78 | 13 |
|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의심 | 196 | 13 |
| 부처님은 아버지, 중생은 그 자식이다 | 38 | 14 |
| 부처님의 지혜는 바다처럼 넓고 깊다 | 37 | 9 |
| 부처님의 마음은 대자비다 | 16 | 1 |
| 부처님의 자비는 영원한 것이다 | 17 | 4 |
| 부처님은 욕신이 아니다 | 14 | 3 |
| 부처님은 몸으로써 가르침을 설하였다 | 25 | 14 |
| 부처님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죽음을 보였다 | 25 | 14 |
| 부처님은 방편으로 사람들을 번뇌에서 구제하신다 (비유 이야기) | 20 | 10 |
| 깨달음의 세계 | 257 | 5 |
| 불·법·승에 귀의한다 | 191 | 13 |
| 계·정·혜 세 가지를 배우라 | 175 | 7 |
| 여덟 가지 바른 도 | 178 | 12 |
| 깨달음을 얻는 여섯 가지 길 | 181 | 8 |
| 네 가지 바른 노력 | 180 | 12 |
| 네 가지 바른 견해 | 180 | 4 |
| 깨달음을 얻는 다섯 가지 힘 | 181 | 1 |
| 네 가지 큰 마음 | 184 | 7 |
| 인생을 깨달은 사람 | 43 | 13 |
| 인간의 죽음과 무상 | 13 | 6 |

| | 頁 | 行 |
|--------------------------|-----|----|
| 염불자는 정도에 태어난다 | 122 | 10 |
| 스스로 등불이 되고 언덕이 되어라 | 11 | 1 |

수양

| | | |
|--|-----|----|
| 무엇이 자신의 첫 번째 문제인가(비유 이야기)..... | 161 | 9 |
| 첫걸음을 신중하게 | 143 | 13 |
| 초심을 잃지 말라(비유 이야기) | 163 | 8 |
| 그 길에서 성공하려는 자는 많은 고난을 견디라(이야기) | 170 | 9 |
| 몇 번 넘어져도 분기하라(이야기) | 186 | 7 |
| 경우에 따라서 마음을 움직이지 말라(이야기) | 134 | 4 |
|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등불을 들고 어둔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 37 | 6 |
| 인생 어느 곳이나 가르침이 있다(이야기)..... | 173 | 14 |
|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는대로 움직이기 쉽다 | 131 | 14 |
| 가르침의 요체는 마음을 닦는 데에 있다..... | 11 | 15 |
| 먼저 마음을 닦아라 | 228 | 11 |
| 마음을 기르면..... | 132 | 2 |
| 마음의 모습(비유 이야기)..... | 128 | 3 |
| 마음은 자아가 아니다 | 51 | 12 |
| 마음에 얽매이지 말라 | 11 | 5 |
| 자기 마음을 이겨라 | 165 | 10 |
| 마음의 주인이 되라 | 12 | 1 |
| 모든 악은 몸과 입과 뜻에서 | 92 | 3 |
| 말과 마음..... | 135 | 14 |

생활색인

| | 頁 | 行 |
|--------------------------------|-----|----|
| 이 몸은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이야기)..... | 154 | 11 |
| 이 몸은 더러움에 넘쳐 있다 | 139 | 10 |
| 탐내지 말라..... | 11 | 5 |
| 몸·입·뜻의 세 가지를 맑게 가져라 | 133 | 12 |
| 치우치지 말고 노력하라(이야기)..... | 185 | 9 |

번뇌

| | | |
|--|-----|----|
| 번뇌는 집념에서 일어난다 | 47 | 6 |
| 번뇌를 막는 방법 | 13 | 13 |
| 미혹은 깨달음의 입구 | 64 | 12 |
| 미혹에서 벗어나는 길 | 126 | 1 |
| 번뇌의 불길을 끄면 청량한 깨달음이 얻어진다..... | 153 | 4 |
| 애욕이야말로 미혹의 근본 | 90 | 12 |
| 애욕을 독사로 생각하라 | 90 | 15 |
| 불 타오르는 집에 집착하지 말라 (비유 이야기)..... | 21 | 3 |
| 욕망은 과오의 근본 | 126 | 3 |
| 이 세상은 불길 속에 있다 | 87 | 14 |
| 사람은 명리에 스스로를 불태운다..... | 129 | 6 |
| 재색을 탐함으로써 사람은 제 몸을 망친다..... | 129 | 10 |
| 현자와 어리석은 자의 특징..... | 144 | 23 |
|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악을 알지 못한다(비유 이야기)..... | 152 | 8 |
| 어리석은 자는 결과만을 보고 남을 부러워한다 (비유 이야기) | 152 | 11 |
| 어리석은 자에게 있을 수 있는 일(비유 이야기)..... | 158 | 8 |

| 일상생활 | 頁 | 行 |
|----------------------------------|-----|----|
| 베푼 뒤에는 베풀었다는 생각을 잊어라 | 182 | 8 |
| 무재의 칠시 | 182 | 15 |
| 부를 얻는 방법(이야기) | 157 | 2 |
| 행복을 낳는 방법 | 143 | 4 |
| 은혜를 잊지 말라(이야기) | 150 | 1 |
| 사람의 성격 | 94 | 10 |
| 양값음을 하려는 자에게는 재난이 따르기 마련이다 | 142 | 14 |
| 원한을 가라 앉히는 방법(이야기) | 251 | 7 |
| 납의 비방에 흔들리지 말라(이야기) | 132 | 14 |
| 의식주를 위해 살아가지 말라 | 126 | 14 |
| 즐기기 위하여 입거나 먹지 말라 | 126 | 14 |
| 식사의 마음가짐 | 224 | 9 |
| 추위에 더위에 대한 마음가짐 | 223 | 8 |
| 일상생활의 마음가짐 | 222 | 10 |

경제

| | | |
|---------------------------|-----|----|
| 물건의 사용법(이야기) | 239 | 2 |
| 재물은 영원히 자기 것은 아니다 | 238 | 6 |
|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지 말라 | 241 | 11 |
| 부를 얻는 방법(이야기) | 157 | 2 |

생활색인

| 가정 | 頁 | 行 |
|------------------------|-----|----|
| 가정은 마음끼리 접촉하는 곳..... | 235 | 12 |
| 가정을 파괴하는 행동 | 229 | 12 |
| 부모의 큰 은혜에 보답하는 길 | 234 | 14 |
| 부모와 자식의 도 | 230 | 9 |
| 부부의 도..... | 231 | 10 |
| 부부는 신앙을 같이하라(이야기)..... | 240 | 13 |

출가의 길

| | | |
|--------------------------------|-----|---|
| 승복을 걸치고 경을 윈다고 다 승려는 아니다 | 213 | 7 |
| 승려는 사찰과 그 재물의 상속자는 아니다..... | 210 | 3 |
| 욕심 많은 자는 참된 승려가 아니다..... | 210 | 6 |
| 승려가 가져야 할 진실한 생활이란 | 212 | 4 |

사회

| | | |
|--------------------|-----|----|
| 사회의 의의..... | 245 | 15 |
| 사회의 현실상..... | 103 | 15 |
| 사회 집단의 유형 | 246 | 2 |
| 참된 공동사회..... | 246 | 9 |
| 어둠의 들판에 비치는 빛..... | 244 | 6 |
| 화합하는 인간관계..... | 247 | 6 |
| 사회단체의 화합..... | 248 | 13 |
| 승단의 이상..... | 247 | 12 |

| | 頁 | 行 |
|----------------------------------|-----|----|
| 불교도의 사회적 이상 | 256 | 12 |
| 질서를 어지럽히면 함께 멸한다(비유 이야기) | 151 | 6 |
| 시기하여 다투는 자는 함께 멸한다(비유 이야기) | 151 | 6 |
| 노인을 존경하라(이야기) | 145 | 7 |
| 스승과 제자의 길 | 231 | 1 |
| 벗의 길 | 231 | 17 |
| 벗을 가리는 법 | 233 | 14 |
| 고용주와 고용인의 마음가짐 | 232 | 9 |
| 죄인에 대하여 | 242 | 2 |
| 교사의 마음가짐 | 214 | 16 |

불교 용어 풀이

경(經)

구체적인 말뜻은 원래 날줄이며, 학문적으로는 방대한 내용을 종적으로 관통하는 개요를 뜻하는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으로 삼장경의 하나이다.

공(空)

존재하는 것에는 실체도 없고 ‘영원불멸한 나’ 라는 존재도 없다는 사상이다. 모든 것은 서로 연기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속에 실체로서 불변한 자아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실체가 있다고 집착해서는 안되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집착해서도 안된다. 사람이나 그 밖의 모든 존재는 상대적인 관계에 있으며, 하나의 존재와 주의, 주장에 집착하거나 절대시 해서는 안된다. 반야계통 경전의 근본사상이다.

교단(승가)

같은 가르침을 받드는 사람들의 단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교리를 설하는 성직자 부류와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신자로 구성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승가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승가는 초기불교 시절에는 출가자 교단을 가리켰던 것으로 보인다. 뒤에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보살이라는 인간상을 지향하며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출가자 뿐만 아니라 재가자들까지도 승가에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

대승불교

불교유전사에 두 큰 흐름이 생겼는데, 그것은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이다. 대승불교는 티벳, 중국, 한국, 일본에 퍼지고, 소승불교는 버마, 스리랑카, 태국 등지에 퍼졌다. 대승불교는 이 세상에서 생과사의 고힬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모두 평등하게 받아들여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교리이다.

무명

바른 지혜가 없는 상태. 미혹의 근본인 무지, 어리석음을 말한다. 불교의 학파마다 이 단어에 대한 해석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가장 근원적이며 번뇌를 번뇌이게 하는 원동력과 같은 것이라는 설명은 일치한다. 존재가 생겨나게 된 단계를 밝힌 12 연기설의 제일 처음에 무명이 들어있다. 생존 욕망의 맹목적인 의지로 이해해도 좋다.

무상

덧없음. 모든 존재가 변화하고 생멸하며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무상에 대한 이해는 불교를 다른 종교와 뚜렷하게 구분 짓는다. 모든 것은 생하고 지속하고 변해가다 마침내는 멀하게 되며, 이런 단계를 관찰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진실하게 느끼고 종교적 반성의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덧없다고 하여 단순한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의 어두운 면만을 강조해서는 안된다. 생성과 발전도 모두 덧없음의 한 면이기 때문이다.

무아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로 이 세계의 모든 존재나 현상에는 영원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당시 인도의 종교는 모든 존재에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아트만을 설해왔는데, 이에 비해 제행무상을 주장하는 불교가 영원한 존재일 수 없는 이 세상의 존재나 현상에 실체가 없다고 설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말하는 자아(아트만)는 다른 종교의 영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바라밀

파라미타라는 범어의 음사. 도 또는 도피안이라 번역한다. 미혹으로 가득찬 이편 언덕인 현실세계로부터 깨달음의 저편 언덕인 부처

님의 세계로 건너게 하는 실천행을 말한다. 여기에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여섯 가지 구체적인 실천항목이 들어있어서 이것을 육바라밀이라고 한다.

번뇌

깨달음의 실현을 방해하는 인간의 모든 정신작용을 말한다.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많은 욕망은 몸과 마음을 괴롭히고 어지럽히며 번민하게 한다. 그 근원은 아욕, 아집이며, 생명을 있게 하는 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근본적인 번뇌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며, 이로부터 수많은 번뇌가 파생하고 있다. 이것들은 깨달음을 실현하는 데에 방해가 되므로 수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멀해버려야 한다. 그러나 중생을 살아있게 하는 힘과 직결되는 이상 번뇌는 오히려 깨달음을 향한 도약이 될 수 있다고 긍정하는 사상도 있다.

범어(Sanskrit)

고대 인도의 고전적인 문어체 언어로 인구어족에 속하며, 베다어와 고전적 범어로 나누어진다. 대승불교의 경전은 불교적 범어라고 알려진 이 말로 기록해 왔다.

법

깨달아진 것이나 붓다가 설한 진실한 가르침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경, 율, 론의 삼장을 말한다. 이것은 깨달은 자인 붓다와 불제자의 모임인 승가와 함께 불교의 기본적인 바탕인 삼보를 구성하고 있다.

보살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래는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열기 이전에 수행하던 시절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대승불교가 일어난 뒤에는 이 말이 확대 해석되어 대승불교도를 가리키

게 되었다. 즉 위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지향하면서 아래로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인간상을 보살이라 부르게 되었다. 또 부처님의 자비나 지혜의 활동 가운데 한 부분을 지니고 있으면서 부처님을 보좌하여 사람들의 고뇌에 응하여 나타나는 관세음이나 지장이나 문수와 같은 위신력이 있는 구세주도 보살이라 불린다.

부처

깨달은 자라는 범어를 음사한 것이다. 붓다 혹은 줄여서 불이라고도 한다. 한역으로는 ‘각자’ 혹은 ‘정각자’ 라고도 한다. 본래는 35세 때 깨달음을 얻은 인도의 불교 창시자인 석가모니불을 가리켰다. 불교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다 이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며, 그 수단이나 기간 등의 차이에 따라서 종파가 나뉘어져 있다.

대승불교의 경우 역사적으로 실재한 부처인 석가모니불의 배후에 여러가지 영원한 부처의 존재를 설하고 있다. 이를 테면 아미타불, 대일여래, 비로자나불, 약사여래, 구원실성의 석가모니불과 같은 부처가 각 종파의 숭배대상이나 교주로서 설해지고 있다.

불성

부처가 될 씨앗을 말한다. 모든 존재에는 불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에 불교의 특징이 있다.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잠재력, 가능성 또는 불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체중생실유불성’이라는 구절에도 나타나 있듯이 모든 존재에 차별없이 이런 불성을 인정한 데에 불교의 평등성을 엿볼 수 있다. 내재하는 불성이 밖으로 드러난 것을 부처라 부른다.

삼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세 가지 그릇이란 뜻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를 그대로 실은 경장과 승단의 계율을 실은 율장, 그리고

고승들의 주석과 논문들을 실은 논장을 말한다.

소승불교

전통적 남방불교를 일컫는 이름이다. 테라는 연장자라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뒤에 전통불교를 반대하고 북방불교인 대승불교를 창시한 진보적 승려들과 맞서 계율을 철저히 고수해 온 보수적 장로 집단이다. 불교체제에 이처럼 대립적 경향이 일어난 것은 불타가 서거한 지 불과 수세기 뒤인 초기의 일이라고 한다. 그 무렵의 진보적인 스님 마하데바가 불교계율의 다섯 가지 범주 안에서 불교교리를 자유롭게 해석하기를 주장했는데, 이것이 소승불교 안에서 분열을 일으켜 뒤에 대승불교의 근원이 되었다.

승단

비구승, 비구니와 불제자로 구성된 집단으로 불교의 삼보 가운데 하나이다. 원래는 출가한 비구, 비구니의 집단이었으나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보살상을 그리워하는 자는 모두 수용했다.

업

본래의 뜻은 행위인데 인과관계와 결합하여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로서의 잠재적인 힘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하나의 행위는 반드시 선악, 고락을 과보를 가져오며 그런 행위의 영향력을 업으로 보기도 하는 데, 예를 들어 숙업이란 말은 전생에 지은 행위의 과보로서 받게 된 윤회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착한 행위를 되풀이하여 쌓아 가면 그 영향력은 미래에까지 미쳐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이 업에는 몸과 입과 뜻의 세 가지 행위가 있다.

연기

인연생기의 준말로 모든 존재가 서로 관계하여 생겨나는 이치를 말한다. 불교의 기본적인 사상이다. 모든 존재가 생멸을 시작하게 된 이치를 설명하는 교리이면서 동시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 연기사상은 교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조직을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찰이나 불상의 유래나 전설을 가리킬 때도 쓰인다.

열반

범어의 ‘불어서 끈다’ 라는 뜻의 ‘니르바나’ 를 음사한 말로 멸, 멸도, 적멸 등으로 옮겨진다. 촛불을 불어서 끄는 것처럼 욕망의 불을 불어서 끈 자가 도달하는 경지. 이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열반에 든다라고 하고 도달한 자를 붓다라고 한다. 석가모니가 입적한 순간을 입열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육체가 멸했을 때에 번뇌의 불이 완전히 꺼진다는 견해에서 나온 말이다. 석가모니가 35 세에 그런 상태에 도달해 부처가 됐지만, 사람의 육신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얼마쯤의 부정함 잔재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지금은 80 세로 서 거해서 완전히 평온에 들어간 순간에 비로소 열반했다고 믿는다.

유식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인간의 마음에서 생긴 것으로, 실체로 있는 것은 오직 이 마음 뿐이라는 대승불교의 학설. 즉 눈, 귀, 코, 혀, 몸, 의지라는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각기 그 대상을 식별하는 여섯 가지 식 외에 제 7 말나식과 제 8 아뢰야식이라는 두가지 식을 세워 이들 여덟 개의 식의 작용이 이 세상에 존재와 현상을 낳는다는 주장이다.

윤회

과거세에서 현재세로 그리고 또다시 미래세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어가는 것이 마치 수레바퀴 도는 것과 같음을 비유한 말. 인간이 이 미혹한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탈출하지 않는 한, 지옥, 아귀, 축생의 삼악도나 거기에 아수라, 인간, 천상을 보던 욕도의 세계로 영원히 나고 죽는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이 윤회

회의 수레바퀴에서 빠져나온 자를 붓다라고 부른다.

인연

인과 연, 즉 인은 결과를 생기게 하는 직접적 원인이요, 연은 그것을 돕는 외적인 조건이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하여 생멸하는 것이며, 이것을 인연소생이라고도 한다. 이 이치를 고스란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불교에 들어가는 중요한 조건이다.

자비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항목이다. 자는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것, 비는 상대방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이다. 자비란 상대방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주는 마음을 말한다. 온전히 이런 마음으로 대상을 차별하지 않고 다가가는 이가 붓다이며,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과 같은 존재이다.

중도

편견을 떠난 바르고 치우치지 않은 도를 말하는데, 이것이 불교의 입장이다. 불교의 모든 종파와 학파에서는 중도사상을 존중하고 고취해 왔다. 집착을 떠나고 공평하게 현실을 꿰뚫어 보는 입장을 표현하는 말로서, 양극단을 부정하고 지양하는 사상을 담고 있다. 이를 테면 유와 무의 양극단, 단과 상의 두 가지 견해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일종의 변증법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혜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바른 판단력을 말한다. 이것을 완전히 갖춘 자가 붓다이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모든 현상의 배후에 존재하는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을 얻어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실천을 반야바라밀이라 한다.

출가

가정과 세속의 생활을 버리고 오로지 진리의 길을 걸어 가는 일

또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인도에서는 수도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 종교적 실천생활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의 일이었다. 석가모니도 그에 따라 출가하여 사문(바라문 이외의 수행자)이 되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 붓다가 되어 불교의 개조가 되었다.

팔리어

소승불교에서 쓰는 말인데, 최고의 불교 계율은 이 말로 썼다고 한다. 이말은 범어의 한 방언인 프라크리트어의 한 가지이기 때문에 범어와 팔리어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 따라서 범어로 쓴 Dharma 와 팔리어로 쓴 Dhamma 는 똑 같이 법을 뜻하고, 범어로 쓴 Nirvāṇa 와 팔리어로 쓴 Nibbana 는 똑 같이 열반의 뜻이다.

해탈

윤회하는 미혹한 세계의 속박에서 풀려나 열반이라 불리는 깨달음의 경지로 탈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미혹한 세계로부터 탈출하여 영원한 깨달음의 상태에 머무는 자가 붓다이며, 이곳은 모든 속박을 떠나 있으므로 자유자재하다.

회향

자기의 착한 행위에 따라오는 좋은 결과를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자기 자신의 미래의 깨달음에 돌리는 경우와 타인에게 그 공덕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

불교전도협회에 대하여

불교전도협회에 대하여 말하자면 먼저 사업가인 沼田惠範씨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1934 년에 현재의 사업을 시작한 이래, 사업의 변영은 천지인에 의하고, 인간의 완성은 지혜와 자비와 용기가 갖추어져야만 이루어진다는 신념아래, 기술개발과 마음개발을 지향하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세계의 평화는 인간의 완성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 인간의 완성을 지향하는 종교가 불교이다. 그는 반세기가 넘도록 회사를 경영해 오면서 불교를 포교하고자 불교음악을 보급하고, 근대화를 지향하였으며 불교성화와 불교성전의 보급에 힘써 왔다.

그러다가 1965 년 12 월에 이 모든 불교포교사업을 조직화하여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사재를 기부하였다. 이리하여 불교전도협회는 공식적인 불교전도기관으로 발족하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만물에 널리 미치게 하고 모든 동포가 대지와 대비의 이 빛을 함께 쬐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불교전도협회는 창설자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 문제를 영원히 추구해 나가고자 한다.

간단히 말해서 불교보급을 위한 모든 노력이 불교전도협회가 하는 사업의 전부라는 말이다.

이 성전은 일본의 오랜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불교문화를 자랑하면서도 딱히 일본인의 경전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음을 반성하여 만든 것이다.

따라서 이 성전은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읽어서 마음의 양식이 되며, 누구나 책상 위에 놓아두고, 또 외출할 때에 휴대함으로써 생생한 부처님의 위대한 빛을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비록 이 불교성전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불교를 소개하고 많은 대중들이 쉬고 정확한 내용으로 읽어서 일상생활의 정신적 지침이 되고 진리를 깨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집필 관련자들의 오랜 기간 동안의 노력이 있었다.

불교전도협회는 이 성전이 한 집이라도 더 많은 가정에 들어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동포와 모든 인류들의 손에 건네져서 인류세계의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가르침의 빛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합장